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 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6. 5. 8 (일)	담당부서	유통물류과
담당과장	전응길 과장 (044-203-4380) (010-3587-29620)	담 당 자	장진호 주무관 (044-203-4386) (010-7795-2268)

황금연휴기간, 유통업계 매출 큰 폭 상승

▲ 산업부 조사결과, 백화점 · 대형마트 매출 前週 · 前年 대비 증가

▲ 5.6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기간 소비진작에 크게 기여

□ 산업통상자원부가 연휴기간 중 5.5(목)~5.7(토) 사흘간 백화점·대형마트·가전유통전문점의 매출 동향을 조사한 결과, **연휴기간중 유통업체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.**

* **조사대상** : **백화점**(롯데, 현대, 신세계), **대형마트**(이마트, 홈플러스, 롯데마트), **가전유통전문점**(하이마트, 전자랜드)

□ 유통업체들이 산업부에 제출한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, **연휴기간 동안**(5.5(목)~5.7(토)) **매출이 지난주**('16.4.28(목)~4.30(토)) **대비 36%**, 전년('15.5.5(화)~5.7(목)) **대비 48% 증가했다.**

< 임시공휴일에 따른 유통업체 매출 실적(5.5~7일) >

구분	매출액	①전주대비	②전년대비
백화점	3,735억원	37% ↑	62% ↑
대형마트	3,431억원	35% ↑	39% ↑
가전전문점	492억원	41% ↑	25% ↑
합 계	**7,658억원**	**36% ↑**	**48% ↑**

○ **(백화점)** 의류, 잡화 등 어린이날·어버이날 선물 수요로 사흘간 3,735억 원 매출 실적→ **전주** 및 **전년 대비** 각각 **37%, 62%** 매출 증가했다.

Indus

○ **(대형마트)** 선물 수요와 함께 나들이객 증가로 사흘간 3,431억 원 매출 실적 → **전주 및 전년대비 각각 35%, 39% 매출 증가했다.**

○ **(가전전문점)** 휴일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사흘간 492억원 매출 실적 → **전주 및 전년대비 각각 41%, 25% 매출 증가**

□ 특히, 금번 연휴기간중 정부가 **5.6(금)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소비진작에 상당히 기여**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이번 임시공휴일 5.6(금) 당일 매출 실적은 백화점 1,231억원, 대형마트 1,010억원, 가전전문점 142억원으로 전주 4.29(금)에 비해 각각 34%, 41%, 39% 증가, 그리고 전년 5.6(수) 대비 각각 125%, 66%, 45% 증가했다.

□ 한편, 산업부는 이번 임시공휴일과 지난해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지정한 임시공휴일('15.8.14(금))의 유통업계 매출을 비교해 본 결과, 금년 임시공휴일의 내수 진작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.

※ 지난해와 금년 지정한 임시공휴일 당일 매출 비교
- '15.8.14(금) : 백화점 822억 원, 대형마트 956억 원
- '16.5.6(금) : 백화점 1,231억 원, 대형마트 1,010억 원

○ 이는 올해 임시 공휴일의 경우 ▲유통업계가 어린이날·어버이날과 연계해 각종 할인 행사와 행사를 풍성하게 준비한 점 ▲중국·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점이 매출증가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장진호 주무관(044-203-43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